



재건된 나부 성전에 있는 침례실. 이와 같은 침례탕에서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의식을 받았다.



##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됨

“그들은 어떻게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세우고, 나아가서 그들의 돌아가신  
모든 선조들을 대신하여 ... 모든 의식을 받으므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40년대에 나부에 살고 있던 교회 회원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일은 죽은 친척들을 위한 대리 사업이었다. 1840년, 이 경륜의 시대의 대리 사업이 최초로 수행된 이래, 성도들은 조상들에 대한 계보 자료를 조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리로 침례의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미시시피 강이나 작은 내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1841년, 성도들이 나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을 당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으니—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집 한 채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날 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24:29~30)

강에서 하는 대리 침례는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 1841년 10월 3일에 중단되었다. “주님의 집에서 그 의식을 집행할 때까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sup>1</sup> 성도들은 나부 성전에 새로 판 지하에 임시 나무 침례반을 급히 만들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소나무로 만든 침례반은 나무로 된 12마리의 소 등에 얹혀졌다. 그것은 “성전이 완공되어 더 견고한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까지”<sup>2</sup>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8일에 헌납되었다. 1841년 11월 21일, 십이사도 정원

회의 회원 여섯 명이 40명의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행했으며, 그것은 그 침례반에서 죽은 자를 위해 행한 최초의 침례였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관련한 초기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서 기록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대리 침례는 그 지역의 강에서 합당한 신권의 권세로 행했지만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 침례들은 다시 집행해야 했다. 1842년 8월 31일에 전한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기록자를 참석시켜 그 기록자가 그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기 위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기록과 증언을 자세하게 첨부하십시오.”<sup>3</sup> 선지자는 그 다음날, 그리고 9월 6일에 작성한 또 다른 편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 두 통의 편지는 현재 교리와 성약 127편과 128편이다.

127편에서, 선지자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기록했다. “너희 중 누가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 받을 때에는 한 기록자를 두고 그로 너희 침례의 목격자가 되게 할지어다. 그로 자기 귀로 듣게 하여 진실되게 증거할 수 있게 할지어다. 주가 이르노라. 이는 너희가 기록하는 것이 모두 하늘에서 기록되게 하려 함이니, … 그리고 또,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나의 거룩한 성전의 기록 보관소에 넣어 두어 대대로 기억되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27:6~7, 9)

성도들이 이 성스러운 사업을 진전시켜 나감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들은 의식을 집행하기 원했습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회고했다. “이것은 거대한 사업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죽은 자의 무리를 위해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이사도 중 어떤 사람들은 조셉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바에 따라 그대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이 엄청난 일을 단시간에 이룰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sup>4</sup>

##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동정심의 위대함을 보여 준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육신이 있는 영감 받은 사람에게서 의식을 집행 받는 기회를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sup>5</sup>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영이 너무 늙은 때란 없습니다. 모든 영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용서하는 자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에 의해서입니다. 이 교리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므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전적으로 이해를 넓혀 주고, 어려움과 고난과 비탄 중에 있는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우며 학식 있고 덕을 갖춘 사랑스러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올바르게 못한 전통이나 인간의 불완전한 정신과 자신이 해야 할 옳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선한 양심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가 형제 중 한 명은 화해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 땅에 묻히게 되고, 다른 한 명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소망 없는 멸망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가 멸망을 피할 방도는 없습니까? 다른 종파에서는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교리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의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죽은 자들은 대리 침례를 받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며, 그들은 육체로 있는 동안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교

리는 경전에 자주 반복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죽은 친척들을 위한 그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다.”<sup>6</sup>

1840년 12월에 조셉 스미스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십이사도 정원회와 그 밖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여러분이 이미 듣고,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편지로 다 말해 줄 수는 없으나, … 그것은 분명 고대 교회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저는 시무어 브룬슨 형제의 장례식에서 말씀할 때 처음으로 이 교리를 대중에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죽은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일관성과 타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7</sup>

---

###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행함으로써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 권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다면, 복음, 즉 충만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친족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리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sup>8</sup>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더라는 말은 묶는다, 또는 인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합니까? 열쇠가 전달되어야 하고 엘리야가 와야 하며, 복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합하며, 시온이 건설되고 성도들이 시온 산의 구원자로 와야 합니다.(오바댜 1:21 참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세워서, 그들의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해 모든 의식과 침례, 확인, 씻음, 기름 부음, 성임 및 인봉 권능을 그들의 머리 위에 받아, 그들이 첫째 부활에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로 들리워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 주고 자녀를 아버지에게 묶어 주는 사슬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

“지구가 황폐해지고, 선포된 멸망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죽은 조상들을 구원하고 구속하며, 살아 있는 친척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모을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 있는 모든 친척들을 이곳[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그들이 인봉을 받고 구원을 받아, 멸망의 천사가 올 때 준비되어 있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온 교회가 힘을 다해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후손을 인봉하며, 살아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sup>9</sup>

“산 자를 위한 침례도 있고,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있습니다. ... 여러분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모든 의식들을 그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모든 민족이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수시로 나와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곳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의식을 행하는 친구들이 복음의 법에 순종하는 즉시 주님에게는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집행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친척을 위해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제정된 복음의 의식은 그들에 의해 것처럼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sup>10</sup>

“신앙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은 영육으로 가서 육신은 죽었으나 영으로 살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영육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들을 위해 성역을 베풀며, ...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6 참조) 그러므로,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자들은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위해 받은 것과 똑같이 죽은 자들을 위해 씻음과 기쁨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sup>11</sup>

---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을 찾아내라는  
막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죽은 자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의 눈을 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육신

에 대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이 필멸의 육신과는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전혀 육신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게 될 계시는 우리의 육신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책임을,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육신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영은 반드시 영으로 복음에 순종하거나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개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인자의 명령에 복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조들과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비록 육신은 땅 속에서 썩어 부패한다 하더라도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영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듯이 사물을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11:40 참조) 이는 인봉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죽은 자를 인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나 후에 올 사람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

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sup>12</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128편 15~18, 22, 24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여,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바울이 조상들에 대하여 말하기를—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관련하여 나는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리고 또, 이 인용구와 관련하여 나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의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그는 신권의 회복,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들,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니, 곧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 말라기의 마지막 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이것에 대하여 좀 더 명백한 번역을 할 수 있었겠으나, 그대로도 나의 목적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명백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니라—보라, 그 주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니라. 이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

“…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 지어다. 죽은 자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 날 것임이니라 …

“…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sup>13</sup>

##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조셉 스미스와 초기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하면서 469~470쪽을 복습한다. 성도들이 처음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떤 것을 느꼈는가?
- 471쪽 셋째 및 넷째 단락을 읽는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는가? 이 교리는 어떤 면에서 “이해를 넓혀 주고” “영혼을 떠받쳐” 줄 수 있는가?
-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472~474쪽을 참조한다.)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우리 없이 완전해지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들 없이 완전해지는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죽은 자를 찾아내는”(475~477쪽) 막대한 책임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일부를 복습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이 조상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는 일은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우리는 자녀들이 가족의 유산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녀들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로마서 14:9; 교리와 성약 128:8~11

주

1. *History of the Church*, 4:426; 1841년 10월 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의 모임 기록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0월 15일, 578쪽.
2. *History of the Church*, 4:446~447;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book C-1, addenda, 44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3. *History of the Church*, 5:141; 1842년 8월 3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4. 조지 에이 스미스, 1874년 12월 25일,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전한 설교; St. George Stake, General Minutes에서, 제4권, 교회 기록 보관소.
5. *History of the Church*, 3:29; Elders' Journa 에 게재된 사실에서 발췌, 1838년 7월, 43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6. *History of the Church*, 4:425~426; 1841년 10월 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의 모임 기록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0월 15일, 577~578쪽.
7. *History of the Church*, 4:231;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십이사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0년 12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 이 편지는 *History of the Church*에 1840년 10월 19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8. *History of the Church*, 4:569; 1842년 3월 27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9. *History of the Church*, 6:183~184; 1844년 1월 2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6:365~366; 단락 구분 변경; 1844년 5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볼락이 보고함.
11. 조지 라움이 조셉 스미스의 설교에서 발췌한 편찬물에서 인용, 1845년경; George Laub, Reminiscences and Journal 1845년 1월~1857년 4월, 21쪽, 교회 기록 보관소.
12. *History of the Church*, 6:312~313; 현대화된 철자법;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볼락,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13. 교리와 성약 128:15~18, 22, 24; 1842년 9월 6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